

전쟁의 제물로 강요당한 여성들

: 마쓰모토 세이초(松本清長)의 「빨간 제비뽑기(赤いくじ)」 분석을 중심으로

김영숙 _ 동북아역사재단 초빙연구위원

목 차

- I. 머리말
- II. 「빨간 제비뽑기(赤いくじ)」와 식민지 조선
- III. 전쟁과 여성
- IV. 맺음말

국문초록

「빨간 제비뽑기」는 마쓰모토 세이초가 1955년에 발표한 현대소설로서, 1944년부터 패전 때까지 조선군으로 복무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해방 전후의 조선 풍경과 패전 이후 일본인들의 귀환까지를 그린 작품이다. 이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출정병사의 아름다운 아내를 둘러싼 구스다 고급 참모와 스에모리 군의관의 각축전을 심리묘사를 중심으로 잘 그려낸 역작이다.

이 작품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패전 후 일본인들의 귀환스토리 범주 안에서 소설의 묘사와 함의를 분석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 한국 독자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평가하고자 한다. 첫째, 일본인 병사로서 조선에서 패전을 맞이한 세이초가 조선인 대 일본인의 대결과 갈등에 중점을 둔 내용이 아니라 장교들이 전범 처벌 회피를 위하여 미군에게 일본인 위안부를 제공하려고 한 얘기를 썼다는 점이다. 즉, 민족적 대결이 아니라 전쟁의 속성과 그 안에서 여성들에게 강요된 희생을 적나라하게 다루었다는 점이다.

둘째, 전쟁 중 병사들의 성적 욕망과 남편의 부재 속에 출정 병사의 아내가 감당해

야 하는 위험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잘 묘사했다는 점이다.

주제어

마쓰모토 세이초, 마츠모토 세이초, 빨간 제비뽑기, 빨간 제비, 붉은 제비, 조선군, 일본 패전, 일본인 귀환

1. 머리말

마쓰모토 세이초(松本清張)는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작가로서 특히 최근
에 많은 작품이 한국어로 번역되고 있다. 그의 이름에는 흔히 추리소설가, 특
히 ‘사회파 추리소설가’라는 호칭이 붙는데, 그가 1958년에 발표한 『점과 선
(点と線)』이나 『제로의 초점(ゼロの焦点)』 등의 대표작은 관료사회의 부패,
전후 미군점령기의 사회상 등을 반영한 소설로서 ‘사회파 추리소설가’로서 이
름을 알리는 기초가 되었다.

최근 한국에서도 세이초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역
시 ‘사회파 추리소설’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¹⁾.

그런데 ‘사회파 추리소설가’라는 틀로 마쓰모토 세이초를 규정한다면, 그
의 작품 세계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이초는 1950년 「사이

1) 조정민, 「점령기억의 연속과 단절-마쓰모토 세이초(松本清張) 『제로의 초점(ゼロの焦点)』의 경우」, 『동북아 문화연구』 23, 2010; 이동, 「마쓰모토 세이초(松本清張)의 사회성 고찰 : 소설 『모래 그릇』을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이영화, 「마쓰모토 세이초(松本清張)의 『점과 선(点と線)』 고찰-‘조작’과 ‘은폐’의 상징성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유수정, 「마이너 신체성의 굴레-사회파 추리소설 모래그릇(砂の器)에서 보는 한센병」, 『아시아 문화』 45, 2017; 이병진, 「일본 근대문학의 집합적 무의식과 터부 - 마쓰모토 세이초(松本清張)의 『모래그릇(砂の器)』을 중심으로」, 『일본학』 49, 2019; 오준방, 「김성종과 일본 추리소설 관련 연구 : 김성종의 《최후의 증인》과 마쓰모토 세이초의 《제로의 초점》을 중심으로」, 송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20 등이 있다.

고사쓰(西郷札)가 『주간 아사히(週刊朝日)』의 「100만 명의 소설(百万人の小説)」에 3등으로 입선하면서 등단하였으며, 1952년에 발표한 「어느 고쿠라 일기전(或る「小倉日記」伝)」은 순수문학 신인에게 수여하는 아쿠다가와상(정식 명칭은 아쿠다가와 류노스케상(芥川龍之介賞))을 수상(제28회)한 바 있다. 실제로 세이초의 작품은 추리소설 외에 시대소설 또는 역사소설, 전기소설(傳奇小説) 등 다양하며, 소설 외에 역사론, 역사물, 작가론, 수필, 기행문 등이 있다. 소설의 경우에도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내용이 오히려 더 많으며, 그런 작품들 대부분은 평범한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 모순과 역설을 보여주는 데 그 묘미가 있다.

한편, 세이초는 일본 패망 직전에 조선에서 군대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국 관련 작품도 다수 발표하였다. 최근 한국에서 세이초의 ‘한국 관련 작품’에 주목한 연구가 나오기 시작하였는데 세이초의 한국 체험과 한국관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기련은 세이초 작품 중 『통감(統監)』과 『북의 시인(北の詩人)』을 분석²⁾하였으며, 김용의는 『마쓰모토 세이초 전집(松本清張全集)』 전 66권을 정리하여 세이초의 한국 관련 작품을 소설 21편, 논픽션 2편, 자서전 1편으로 분류³⁾하였다. 그는 『전집』에 수록되지 않은 작품이나 자신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작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내용상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관련 내용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김용의는 남부진(南富鎭)의 연구⁴⁾를 제외하고는 일본에서 세이초

2) 한기련, 「마쓰모토 세이초(松本清張) 연구-한국관련 작품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79, 2018.

3) 김용의, 「마쓰모토 세이초(松本清張)의 한국 관련 작품 양상 및 특징」, 『일본연구』 84-52, 2020.

4) 남부진, 「松本衛生兵の朝鮮体験」 『松本清張研究』 5, 2004 ; 남부진·鄭惠英, 「松本清張の朝鮮と韓国における受容」, 『松本清張研究』 12, 2011 ; 남부진, 「松本清張と丸山眞男の朝鮮」, 『本清張研究』 14, 2013.

의 한국 관련 작품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듯하다⁵⁾고 비판하였는데 사실상 기타큐슈시립(北九州市立) 마쓰모토세이초기념관(松本清張記念館)이 세이초와 동아시아, 세이초와 한국 관련 작품을 정리한 것이 전부이다. 그렇지만 세이초의 한국 관련 작품에 무관심한 일본문학계를 탓하기에 앞서 한국 학계에서 한국 관련 작품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본고에서는 세이초의 한국 관련 소설 중에서 「빨간 제비뽑기(赤いくじ)」⁶⁾라는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일본 평단에서는 일본 패전에 따른 귀환 소설로 분류하고 있으나 식민지 조선을 배경으로 일본 패망과 미군 진주, 전후 일본인 위안부 문제 등을 다루고 있어 한국 독자에게도 매우 흥미로운 작품이다. 세이초의 자서전에 해당하는 『반생의 기록(半生の記)』⁷⁾과 대조하면서, 세이초의 실제 군 체험과 패전 당시 상황이 소설 속에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또한 같은 소재의 다른 작품과도 비교하고자 한다.

본고는 「빨간 제비뽑기」의 문학적 분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전쟁 상황 속에서 남편을 전쟁터에 보낸 여성을 둘러싼 남성들의 욕망과 일본 패전 후 여성들에게 강요된 성적 희생에 주목하여 전쟁과 여성, 그리고 그들에게 강요된 희생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작품 속에서 대상 여

5) 김용의, 앞의 논문, p.58.

6) 이 작품의 한글 번역은 「빨간 제비」(마쓰모토 세이초, 김경남 옮김, 『어느 「고쿠라 일기」 전』, 모비딕, 2017. 수록)이지만 이 표현으로는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본고에서는 「빨간 제비뽑기」라고 번역하기로 한다. 참고로 김용의는 「붉은 제비뽑기」라고 번역하였다. 이 작품은 『松本清張全集』 제35권에 수록되어 있으나, 본고의 인용문은 번역서를 사용하였다. 이하 「빨간 제비뽑기」.

7) 松本清張, 「半生の記」, 『松本清張全集』 34, 文藝春秋, 1974(한국어 번역판은 김경남 역, 『아직 늦지 않았다-마쓰모토 세이초, 반생의 기록』, 모비딕, 2019). 본고의 인용문은 번역본에 의한다. 이하 「반생의 기록」.

성을 바라보는 남성들의 인식과 욕망이 변화해 가는 과정을 살펴본다. 둘째, 패전 후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하여 일본인 남성들이 일본인 여성을 어떻게 이용하려 하였는지, 그 방법과 논리 등을 분석한다. 셋째, 패전 당시 일본 남성들이 일본 여성들에게 강요한 성적 희생의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그 목적과 본질을 살펴볼 것이다.

II. 「빨간 제비뽑기(赤いくじ)」와 식민지 조선

1. 마쓰모토 세이초의 한국 관련 작품과 「빨간 제비뽑기」의 위상

일본에서 「빨간 제비뽑기」를 분석한 논문은 4편이 있다. 먼저, 리엔화(李彦樺)의 2014년도 간사이대학(関西大学) 박사학위논문 『마쓰모토 세이초와 이문화 접촉(松本清張と異文化接触)⁸⁾』에서는 제3장 「사회모순과 이문화-작품 연구를 통하여」의 제1절에서 「빨간 제비뽑기」를 분석하였는데 모파상의 「비계덩어리」와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관하여 분석하여 세이초의 독창성을 규명하였다.

다음으로 카오 야지에(曹雅潔)의 연구⁹⁾는 세이초가 영향을 받았던 문학작법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기무라 기(木村毅)의 『소설연구 16강(小説研究十六講)』이 세이초 초기 소설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특히 소설의 화자(話者)를 중심으로 세이초 초기 소설을 분석하였으며, 그 중 「빨간 제비뽑기」도 분석 대상 중 하나로 제시되었다. 작중 화자는 마치 사법관이 법정에서 등장인물들에게 범죄를 ‘진술’하게 한 후 그들에게 판결을 내리듯이 이야

8) 李彦樺, 『松本清張と異文化接觸』, 関西大学博士論文, 2014.

9) 曹雅潔, 「松本清張の初期小説における語り手の姿勢—『小説研究十六講』を補助線に」, 『九大日文』32, 2018.

기 내부에서 초월한 자세로 ‘진술’의 복선을 깬 후 ‘평가’를 덧붙이며¹⁰⁾, 이야기 세계 밖의 시비를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때로는 작중인물의 내면에 얽혀들어¹¹⁾ ‘사법관적 직무’를 행사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 결과 화자의 내레이션을 통해 어느덧 독자들도 화자와 같은 위상(심판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¹²⁾는 것이다.

신조 이쿠오(新城郁夫)는 「빨간 제비뽑기」를 ‘해방 전후의 한반도에서 일본군의 혼란과 일본인 귀환을 둘러싼 전시의 혼란을 묘사한 소설’이라고 규정하면서도, 내셔널 히스토리인 ‘귀환’이야기에 대한 저항을 스스로의 내부에 끌어들이며 ‘일본인’이라는 상상적 주체의 분열을 묘사함으로써 ‘조국’으로의 귀환이라는 이야기 구조에 근본적인 균열을 발생시키려 하였다¹³⁾고 지적하고, 귀환하지 못한 일본인에게 초점을 두면서 그 일본인의 신체 안에 생겨난 괴기한 욕망을 절개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빨간 제비뽑기」에 대한 가장 본격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구보타 유코(久保田裕子) 역시 일본제국 해체에 따른 대규모 인적 이동으로서의 ‘귀환’이라는 관점에서 이 소설을 분석¹⁴⁾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귀환은 동아시아지역 전체의 전후 질서 형성의 원점으로서, 식민지·점령·국가라는 국가 이데올로기와 내셔널리즘으로 구성된 관계망 중심으로 쏠리게 되며, 결말의 ‘황군(皇軍), 패전에 비분강개하여 귀환 도중 자결’이라는 보고서 구절 속에 참된 전말이 은폐된다고 보았다. 또한 역사를 둘러싼 표

10) 曹雅潔, 같은 논문, p.36.

11) 曹雅潔, 같은 논문, p.37.

12) 曹雅潔, 같은 논문, p.38.

13) 新城郁夫, 「転移する「勝者の欲望」松本清張「赤いくじ」を読む」, 『現代思想』 33-3, 2005, pp.141~142.

14) 久保田裕子, 「引揚げの記憶を表象/隠蔽すること」, 『松本清張研究』 17, 2016.

상과 은혜를 내포한 「빨간 제비뽑기」를 스스로를 전쟁 피해자라고 규정한 전 후 일본의 전형적인 내러티브에 의거하지 않는 서술이라는 점에서 특이한 텍스트라고 평가하였다.

김용의는 세이초의 한국 관련 작품을 소설 21편(단편 16편, 중편 1편, 장편 4편), 논픽션 2편, 자서전 1편 등으로 분류하여 총 24편의 전체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역사소설의 소무대로서의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병영 체험의 기억’, 그리고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중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작품은 「불에 대한 기억(火の記憶, 1952)」, 「붉은 제비뽑기(1955)」, 「진안의 숲(眞贗の森, 1958)」, 「염전(厭戰, 1961)」, 「백제의 풀(百濟の草, 1963)」, 「도주로(走路, 1963)」, 「반생의 기록(1963-1964)」, 「만경(晩景, 1964)」, 「박열 대역사건(朴烈大逆事件, 1964)」, 「풀의 음각(草の陰刻, 1964-1965)」, 「통감(1966)」, 「증언의 숲(證言の森, 1967)」, 「제어장치(歯止め, 1967)」, 「원거리 접근(遠い接近, 1971-1972)」 등 14편을 꼽고 있다.

한편, 마쓰모토세이초기념관은 세이초의 작품 중 식민지 조선에서의 군대체험(조선군)을 반영한 것으로 10편을 꼽고 있다¹⁵⁾. 그 중 김용의가 분류한 한국 관련 작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서 「임무(任務, 1955)」, 「시장 죽다(市長死す, 1956)」, 「번창하는 메스(繁昌するメス, 1955)」, 망(網, 1975~1976) 등 4편을 더 포함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 밖에 단편 「혼자 가는 여행(ひとり旅)」¹⁶⁾에는 보충병으로 징집된 주인공의 경성에서 주둔한 경험이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전집에 수록되지 않았으므로 김용의 분류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위에서 언급한 총 19편 가운데에는 사업에

15) 北九州市立松本清張記念館編, 『松本清張の軍隊時代-朝鮮の風景』, 北九州市立松本清張記念館, 2004, p.20.

16) 松本清張, 『延命の負債』, 角川書店, 1987에 수록.

실패하거나 직무상 한직으로 밀려나서 흘러간 변방으로서 ‘조선’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한 「불에 대한 기억」이나 「진안의 숲」과 같은 작품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불에 대한 기억」에서는 주인공의 아버지가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닥친 불황으로 산터미 같은 빛을 떠안고, 결국 조선으로 건너간 채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것이다¹⁷⁾.’ 라고 간단히 언급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한국 관련’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작품을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세이초 문학에서 「빨간 제비뽑기」의 위상을 검토해보기로 하자. 세이초가 최초로 쓴 현대소설은 1952년의 「불의 기억(발표 당시의 제목은 「기억」)이며, 최초의 추리소설은 1955년에 쓴 『잠복(張込み)』이다. 이후 『점과 선』, 『제로의 초점』, 『눈의 벽(眼の壁)』 등의 작품이 연달아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사회파 추리소설’이라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빨간 제비뽑기」는 1955년 6월에 문예춘추사(文藝春秋社)가 발행하는 월간 오락소설지인 『올 요미모노(オール讀物)』에 발표되었는데, 이 시기는 세이초의 작품 계보에서 시대소설에서 현대소설로 옮겨가는 때이며, 추리소설을 시도하기 직전에 해당한다. 이 작품은 세이초의 두 번째 단행본이자 현대소설만으로 엮은 첫 번째 단편집에 수록되었다. 말하자면, 역사소설로 시작한 세이초가 자신의 체험과 삶의 이력을 녹여서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초기작으로서 조선에서의 군대 체험을 소재로 한 첫 번째 작품이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용산의 조선군사령부를 무대로 한 「임무」가 발표되었다는 점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신조는 「빨간 제비뽑기」가 한국전쟁이 ‘휴전’에 이르고, 일본이 이른바 ‘한국특수’를 통해 전후 부흥이 본격화하는 1955년에 발표되었다는 점에 주목하

17) 「불의 기억」, 마쓰모토 세이초, 김정남 역, 『어느 「고쿠라 일기」 전』, 모비딕, 2017, p.166.

였다. 그는 이 시기를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한국 지배가 원경(遠景)으로 밀려나면서 회고 속에 환시(幻視)되는 역사적 전도가 이미 확립되려고 하는 시기¹⁸⁾라고 설명하였다. 그렇지만 세이초 문학의 계보에서 본다면, 등단 5년 무렵부터 자신의 삶과 경험을 하나씩 작품 속에 풀어내면서 조선에서의 군 생활 체험을 오히려 ‘근경(近景)’으로 보여주기 시작한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세이초는 ‘나는 나 자신에 관한 얘기는 잘 쓰지 않는다. 이른바 사소설이 체질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¹⁹⁾.’ 라면서, ‘사소설에 가까운 작품을 두세 편 쓰기는 했지만’ 자신과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회고하였다. 그가 말하는 ‘사소설에 가까운 작품’이란 ‘나’으로 시작하는 1인칭 소설을 의미하였다. 오히려 세이초는 자신의 삶에 바탕을 둔 이야기일수록 ‘반은 사실이지만 반은 허구’로 구성하는 철저함을 기하였다. 대상을 허구의 세계로 만들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나 감정을 강조하는 기법은 세이초가 즐겨 취하는 방법으로서 세이초 자신에게는 리얼리즘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주제를 명확하게 하는²⁰⁾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다.

세이초는 작가의 소질을 사소설적 구성형과 이야기적 구성형으로 나누고, 사소설적 작가가 경험을 거의 사실 그대로 작품에 쓴다면, 이야기적 구성형 작가는 다른 세계에서 경험을 찾아서 한 편의 이야기로 완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경험이나 인생관을 작품에 담지 않는 것이 아니²¹⁾라고 설명하였다. 즉, 허구의 이야기로 구상한 작품에도 작가의 경험이나 인생관이 담겨 있다는 뜻이다.

세이초의 작품 가운데는 조선군 체험을 다룬 작품 이외에도 자신이 성장

18) 新城郁夫, 앞의 논문, p.141.

19) 『반생의 기록』, p.222.

20) 森史朗, 『松本清張への招集令状』, 文藝春秋, 2008, pp.85~86.

21) 마쓰모토 세이초, 남궁가운 역, 『검은 수첩』, 도스출판 북스피어, 2014, pp.13~14.

한 고쿠라(小倉)·모지(門司)·시모노세키(下関)에 대한 자세한 묘사와 가족사에 관한 이야기 등 자신의 경험을 소재로 한 것이 많다. 그 중 조선군 체험을 소재로 한 작품에는 1944년부터 1945년 무렵의 용산과 전라북도 정읍 풍경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물론 작품에 따라 당시의 조선과 군대 체험 내용의 비중은 다르다. 용산에서의 마쓰모토 세이초 일등병의 위생병 근무를 그대로 연상시키는 「임무」와 「염전」, 34세 늦은 나이에 영장을 받았던 불합리성과 군대 내부의 폭력을 다룬 「원거리 접근」, 패전 후 미군에 대한 위안부 상납을 다룬 「빨간 제비뽑기」, 연작 소설인 「백제의 풀」과 「도주로」²²⁾ 등은 모두 세이초 자신의 조선군 체험이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작품을 제외한 군대 체험 관련 작품은 등장인물의 배경이나 성격을 설명하는 도구로서 무대만을 차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도 「빨간 제비뽑기」는 한국 독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2. 출정 병사의 아름다운 아내와 남편의 부재를 틈탄 남성들의 욕망

「빨간 제비뽑기」는 1944년 가을 미군의 상륙에 대비하여 조선 서해안을 방비하기 위하여 새로 편성된 2개 사단 중 남쪽을 맡은 비조병단(備朝兵團) 사령부가 있는 전라북도 고창(高敞)을 무대로 한다²³⁾. 주요 등장인물은 도청

22) 이 두 작품은 『부인공론(婦人公論)』에 1963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재되었으며, 1964년 3월에 중앙공론사가 『현란한 유리(絢爛たる流離)』라는 책으로 간행하였다. 이후 『마쓰모토 세이초 전집(松本清張全集)』 제2권에 수록되었다(한국어 번역은 이규원 옮김, 북스피어, 2018). 이 책은 연작소설의 형식으로 3캐럿 다이아몬드 반지의 소유자들을 둘러싼 인생 역정과 치정을 다루었다. 1920년대부터 1960년대의 일본사회를 배경으로 하며, 제3화 「백제의 풀」과 제4화 「도주로」는 식민지 조선이 배경이다. 『현란한 유리』의 몇 작품은 TV드라마로 방영되었는데, 3·4화의 내용은 1963년에 방영되었다.

23) 1945년 1월 9일 미군이 필리핀 루손섬에 상륙하면서 연합군의 일본 본토 상륙이 시간문제라 되자 일본 정부는 「제국육해군작전계획대강(帝國陸海軍作戰計画大綱)」을 1945년 1월 20일에 결정하였다. 이 결과 본토결전에 대비하는 54개 사단이 편성되

직원의 아내인 쓰카니시 에미코(塚西恵美子), 60대의 퇴역 중장인 병단장, 참모장인 구스다(楠田) 대령, 군의관인 스에모리(末森) 소령 등이다. 3인칭 전지적 작가시점으로 중국의 북방에서 남방까지 전쟁터를 섭렵한 40대의 구스다 참모장과 38세의 개업의 출신으로 동남아시아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져 전출되어온 스에모리 소령의 내면심리를 상세하게 묘사한데 비해 쓰카니시 부인에 대한 심리묘사는 자세하지 않다. 단지 자신을 두고 경쟁하는 참모장과 군의관을 ‘조금의 차별도 없이 맞이’하면서도 ‘두 사람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에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렵듯이 알고 있었다²⁴⁾’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출정군인의 아내인 그녀가 군부를 배경으로 하는 두 사람을 정면에서 단호히 거절할 선택지는 없었으리라고²⁵⁾ 추정할 수도 있지만, 남편의 부재를 틈타 접근해오는 남자들로부터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쓰카니시 부인이 이 두 남자 사이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인이 두 남자를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일본인 여성이라는 점, 남편이 도청 직원으로 그 지역 출장소 소장이었던 점을 들 수 있다. 쓰카니시 부인이 조선인이었거나 단지 미인이기만 했더라면 여자에게 쉽게 빠지는 데다 질투심도 강한²⁶⁾ 구스다 대령이나 ‘여자라면 동남아시아의 전쟁터를 돌면서 즐길 만큼 즐긴²⁷⁾’ 스에모리 군의관을 제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녀는 도쿄의 고급주택가에서 성장하여 유명한 영어교육 전문 명문학교를 졸업한데

고 조선군은 2월 6일 제17방면군과 조선군관구로 재편되었다. 전라남북도 방비를 위하여 제150사단과 제160사단이 편성된 것은 1945년 2월이지만 소설에서는 1944년 가을로 설정되었으며, 사령부가 있었던 전라북도 정읍은 고창으로 지명이 바뀌었다.

24) 『빨간 제비뽑기』 p.135.

25) 久保田裕子, 앞의 논문, p.66.

26) 『빨간 제비뽑기』 p.124, p.130.

27) 『빨간 제비뽑기』 p.128.

다 미술과 영시에 조예가 깊은²⁸⁾ 교양인이었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녀에게 천박한 육체적 욕망을 쉽게 드러낼 수 없었다. 쓰카니시 부인의 ‘응접실’은 그림 족자와 꽃꽂이, 인형, 일본식 거문고 등으로 장식된 다다미방이었지만 책장 안에는 의외로 영문서적이 많았다. 장식과 소품만으로도 두 남자를 압도해버린 부인의 응접실을 서양의 살롱에 빗대어 식민지 조선의 원격적(遠隔的)이면서 그렇기에 과잉적일 정도로 성적인 제국주의적 공간(홀륭한 일본실)²⁹⁾이라고 평가한 것은 다소 과장된 문학적 수사라고 생각하지만, 이 공간에 ‘출입’을 빙자한 두 남자의 침범성은 소설에 긴장감을 부여하는 요인이다.

두 남자가 서로 경쟁하면서도 부인에게 예의를 지키며 고상하게 행동한 것은 그들에게 부인이 ‘저 높은 곳에 핀 고귀한 꽃’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제까지 상대한 여자들이 마음대로 꺾을 수 있는 꽃이었다면, 부인은 자신들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핀 고귀한 존재였고, 부인을 둘러싼 두 사람의 경쟁은 오히려 부인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렸다.

자신을 절제하면서 부인과의 선을 지키려고 하였던 두 남자가 잠시 욕망에 흔들렸던 것은 부인의 남편이 6개월 전까지 라바울³⁰⁾에 있었고, 그 이후 편지가 끊겼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였다.

‘딱하게 이 사람도 미망인이로구나³¹⁾.’ 하고 생각한 순간 스에모리 군의관은 마음의 동요를 느꼈다. 그러나 그 순간 부인은 미술품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고, 구스다 참모장에 대해서는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를 읊어서 높은 교양

28) 「빨간 제비뽑기」 pp.138~141.

29) 新城郁夫, 앞의 논문, p.145.

30) 라바울(Rabaul)은 현재 파푸아뉴기니 뉴브리튼섬의 주도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은 비행장과 요새를 갖추어 미 해군을 위협하였다. 미 해군은 1944년 2월부터 5월까지 집중적으로 라바울을 폭격하였으나 제8방면군 사령관 이마무라 히토시(今村均)는 지하 요새에 병원과 공장 등을 갖추고 자급자족체제를 이루어 종전 때까지 버티었다.

31) 「빨간 제비뽑기」 p.139.

을 과시하였다. 즉, 부인은 ‘남편의 영원한 부재’를 간파당한 후에도 구스다와 스에모리의 원초적 욕망을 봉쇄하여 그들이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정신적인 애정에 머무르면서 순수한 사랑을 각자의 위안으로 삼아 부인을 향한 승고한 정신을 놓고 서로 경쟁하도록 유도했던 것이다.

3. 일본의 패전과 미군에게 바치는 ‘위안부’ 선발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두 남성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었던 쓰카니시 부인에게 전면적 위기가 찾아온 것은 1945년 8월 15일의 일본 항복이었다. 소설 속에서 해방을 맞이한 조선의 풍경은 조선인들의 파출소 습격, 태극기 게양, 취주악단을 만들어 대형 태극기를 앞세운 학생들의 행진³²⁾ 등으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조선인들의 대응은 예상보다 침착하여 조선 청년들이 경비대를 조직한다며 일본군에 무기와 탄약을 요구한 점과 일본인들의 퇴거를 예상하고 일찌감치 일본인들의 가옥에 들어가서 사는 조선인들이 있는 정도에 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군함이 인천에 입항하고, 이어서 미군이 경성에 들어갔다. 미군 일부가 조선 남부에 있는 일본군 무장해제와 병기 접수 상황을 시찰하기 위해 조만간 고창에 파견된다는 군사령부로부터의 통지를 받고 비조병단 사령부는 긴장했다. 한편, 패전군인 일본군의 입장에서는 참모장과 군의관도 당장 내일 미군의 손에 넘어가면 투옥될지 총살될지 알 수 없었고, 병단장도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다. 즉, 미군의 손에 운명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러한 때 군사령부로부터 “병기 접수를 위해 귀 지구에 파견하는 미군 요원은 장교 10명과 병사 30명으로 구성된다.”라는 통지를 받자, 구스다 참모장의 머릿속에 제시처럼 묘안이 떠올랐던 것이다. 그것은 ‘중

32) 「빨간 제비뽑기」 pp.141~143.

일전쟁이 한창이던 1939년에 중국으로 건너가 북방에서 남방까지 전쟁터를 누빈'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서, '승자의 욕망', 즉, 일본군이 각지의 전장에서 원했던 바와 같이 '위안부'를 미국에게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서 원한 것은 '전범의 죄를 면하겠다는 노림수³³⁾'였다.

그렇지만 그의 논리는 '미군 40명에게 위안부 10~20명을 제공함으로써, 일반 부녀자에게 미칠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실제로는 패전군 장교들의 구명책을 마련하기 위해 승전군에 대해 성적 접대를 하려는 것인데도 '일반 부녀자에 대한 피해 방지'라는 명분을 내세웠다는 점이다.

그런데 당시 고창에는 성 접대를 담당할 직업여성이 없었으므로, 고창 거주 일본인 중 16세에서 40세 사이의 여성을 약 300명으로 산정할 때, "그 300명을 미군의 만행으로부터 지키고 불의의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20명의 희생자가 필요하다³⁴⁾."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20명의 희생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미혼녀와 20세 이하, 병이 있는 자, 임신한 자, 기타 장애가 있는 자를 제외한 102명의 여성 중에서 20명을 뽑는 제비뽑기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구스다는 쓰카니시 부인을 제비뽑기 대상에서 제외시켰지만, 병단장이 쓰카니시 부인의 '영어 능통'을 이유로 제비뽑기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애초에 병단장에게 부인의 영어 능력을 자랑한 것은 구스다 참모장 자신이었으므로 자신이 획책한 일에 부인을 끌어들이는 결과가 되었다.

화선지를 꼬아서 만든 제비 끝에 빨간 잉크를 물들인 것이 당첨 제비였지만, 군과 경찰은 20명의 '위안부'를 선정하는 제비뽑기에 참여하는 103명

33) 「빨간 제비뽑기」 p.145.

34) 「빨간 제비뽑기」 p.146.

의 후보에게 의도를 솔직하게 설명할 수는 없었다. ‘사람들이 받을 충격을 고려’하여 병단장은 정중한 인사말로 “전쟁이 끝났으니 미군이라 해도 이제는 친구입니다³⁵⁾.” 라고 선언하고 멀리서 오는 그들을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맞는 소임을 담당할 사람을 뽑기 위해 제비뽑기를 한다고 설명하였다.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민간인 여성들은 속아서 제비를 뽑았던 것이다.

한편, 제비뽑기의 내막을 알고 있는 구스다 참모장과 스에모리 군의관은 쓰카니시 부인을 ‘위안부’ 후보를 선정하는 제비뽑기에 참가시키는 것 자체가 견디기 힘들었다. ‘그녀가 없어도 누구든 미군을 접대할 수 있는데’ 부인을 이런 일에 참여시키는 것을 모욕이라고 생각하였다. 즉, ‘위안부’는 고상한 부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쓰카니시 부인은 빨간 제비를 뽑고 말았다.

그런데 두 남자의 추앙을 받는 고귀한 쓰카니시 부인의 위상이 추락한 것은 정작 미군 장교들이 위안부를 요구하지 않고 떠나간 다음이었다. 모두가 제비뽑기의 진실을 알게 되자 빨간 제비를 뽑았던 여성들은 사람들에게 경멸의 시선을 받게 되었다. ‘하마터면 미군의 위안부가 될 뻔했다’는 사실이 ‘창녀의 자격이 있는 여자’라는 편협한 의식에 덧씌워져³⁶⁾ 그녀들에게 보이지 않는 낙인을 찍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미 쓰카니시 부인의 남편이 죽었을 것이라고 추정했을 때조차 함부로 부인에게 손을 대지 못했던 스에모리 군의관과 구스다 참모장은 노골적으로 욕망을 드러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쓰카니시 부인은 ‘빨간 제비’를 뽑음으로써 ‘창녀’로 전락하였고, 어차피 미군에게 바칠 여자였으니 자신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두 남자가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두 남자보다 높은 곳에서 숭고한 지배자로 군림하던 부인을

35) 「빨간 제비뽑기」 p.148.

36) 「빨간 제비뽑기」 pp.151~152.

‘빨간 제비’가 욕망의 대상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구스다 참모장과 스에모리 군의관의 무력전으로 쓰카니시 부인은 겁탈당하기 직전에 위기를 모면했겠지만 소설의 마지막 부분은 부인의 안위 따위는 관심을 두지 않고, ‘황군, 패전에 비분강개하여 귀환 도중 자결’이라는 병단장의 보고서로 끝을 맺는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쓰카니시 부인의 위상 변화이다. 부인은 전쟁터에서도 육체적 욕망을 얼마든지 채울 수 있었던 장교들조차 감히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저 높은 곳에 핀 고결한 꽃’이었고 이미 ‘입자 없는 미망인’이 되었다고 간파당한 다음에도 뛰어난 교양과 지식으로 남자들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작위로 뽑은 ‘빨간 제비’ 때문에 위안부 후보를 거쳐 창녀로 전락해갔던 것이다.

III. 전쟁과 여성

1. 마쓰모토 세이초(松本清張, 1909-)의 조선군 체험과 작품의 배경

「빨간 제비뽑기」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세이초 자신의 조선군 체험이 가장 구체적으로 녹아있는 작품 중 하나이다. 이 소설에 나타난 그의 실제 체험과 허구세계를 구분하기 위하여 세이초의 자전적 회고록 「반생의 기록」과 비교하면서 살펴보기로 하자.

세이초가 처음으로 군대를 경험한 것은 만 32세였던 1942년 12월의 ‘교육 소집’이었다. 을종(乙種) 보충병을 교육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는 최하급 육군 위생 2등병으로 구루메(久留米)에 있는 제148연대에 입영³⁷⁾했다. 당시에는 ‘교

37) 森史朗, 『松本清張への招集令状』, 文藝春秋, 2008, p.46.

육소집' 영장만으로 전쟁터에 끌려가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세이초도 각오를 하고 있었³⁸⁾지만 이 때는 3개월의 교육기간을 마치고 무사히 귀가하였다.

실제 전쟁터로 파병되는 본 소집영장을 받은 것은 1944년 6월 28일³⁹⁾이었다. 당시 일본의 전황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다고는 하나 만 34세에 소집영장을 받은 것은 이례적이었다. 후쿠오카(福岡)에 있는 제86사단 제187연대에 2등병으로 입대⁴⁰⁾한지 한 시간 만에 세이초는 자신의 부대가 뉴기니로 가는 보충역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신문은 전황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지만 병사들은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남방 점령지가 얼마나 치열한 격전지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⁴¹⁾. 뉴기니로 보내기 위해서는 일단 조선 경성으로 가서 도쿄나 오사카에서 오는 소집병들과 합류시켜 사단을 편성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연락선으로 부산에 가서 기차를 이용하여 용산역에 도착하였다.

조선군의 역사는 1904년 3월 10일 한국주차군 통할을 위하여 사령부를 설치한데서 시작되어 한국을 식민지화하면서 조선주차군사령부, 1918년 상주체제를 갖추면서 조선군사령부로 개칭되었다. 만주지역과의 국경 경비를 주요 임무로 하는 제19사단과 한반도의 경비를 주요 임무로 하는 제20사단으로 구성되어 1943년까지 평시 약 6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였으나 1945년 패전시에는 24만 명으로 팽창되었다. 일본군의 전황 악화에 따라 제20사단은 1943년 1월, 제19사단은 1945년 1월에 이른바 '남방(南方)'으로 투입되었다. 그 빈틈을 메운 것이 일본과 조선에서 징집된 일본인 보충병이었으며, 조선인 지원병제도와 1944년에 실시된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 실시에 따른 조선인 병사들의 입대였다.

38) 『반생의 기록』, p.123.

39) 森史朗, 앞의 책, p.68.

40) 森史朗, 앞의 책, p.71.

41) 『반생의 기록』, p.130.

세이초가 전속된 보병 제20사단 제78연대 보충대 사단은 용산에 있었으며, 1943년 11월에 편성된 제18군 사령관 지휘하에 속하였다. 제18군은 1944년 7월 10일에서 8월 상순에 걸친 뉴기니 아이타페(Aitape) 전투에서 오스트레일리아·미국 연합군에게 패하여 9,000명 이상의 전사자를 냈다. 세이초가 조금만 더 일찍 입대했더라면 제20사단을 선봉에 배치한 이 전투에서 전사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을 가능성이 크다. 1944년 8월 단계에서 동부 뉴기니에 이어 중앙부의 주요 거점이 미군에게 함락되면서 일본이 남동방면에서 제공(制空)·제해권(制海權)을 상실⁴²⁾한 것은 세이초에게 행운이었다. 뉴기니로 먼저 출발한 보충사단이 미군잠수함에 격추당한 이래 군인들을 수송할 선박도 없었기 때문에 세이초는 용산에 남을 수 있었으며, 중대 소속 위생 이등병으로 근무하다 그 해 12월 위생 1등병으로 진급하였다. 조선에서는 공습을 당하는 일도 없었고, 전선부대로 진출한 이상 연습이나 특수훈련도 없었다.

조선군은 1945년 2월에 제17방면군과 조선군관구로 재편성되었는데, 세이초는 5월에 새로 편성된 제150사단에 소속되었다. 제150사단은 1945년 2월 경성에서 편성된 후 남방 지원에서 조선 수비로 임무가 전환되어 전라북도 정읍에 근거지를 두었다. 정읍은 「빨간 제비뽑기」에서는 전라북도 고창, 연작 소설인 「백제의 풀」과 「도주로」에서는 전라북도 금읍(金邑)으로 지명을 바꾸어서 등장한다. 당시 군대에서는 계급에 따라 대우가 매우 달랐는데 사단장은 신으로서 각하 전용 화장실을 따로 사용하였고 치과 치료를 위해 의료기기를 새로 들여올 정도였다. 숙소도 민간인 지역에 있는 일본 요리점을 배당받았는데 그곳에는 게이샤와 종업원이 있었다. 중위 이하는 농업학교를 접수한 사령부의 학생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공동 외출조차 제한을 받았지만, 대위 이상은 외부에서 거주하였다. 세이초는 일본인 사택에서 하숙을 했

42) 森史朗, 앞의 책, p.257

던 의무대 대위 집에 자주 심부름을 갔는데, 그 집 주인은 삼십 대 초반의 전사한 군인 부인이었다⁴³⁾. 패전 후 일본군 병사들이 귀국하는 송환열차에는 정읍에 거주하던 일본인들도 함께 탔는데, 세이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의무대 대위가 하숙하던 집의 인상이 점잖았던 그 젊은 부인도 같이 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⁴⁴⁾하였다. 그 부인이 쓰카니시 부인의 모델이었을 가능성이 크며, 정읍 주둔과 귀환 체험이 「빨간 제비뽑기」라는 소설의 소재가 되었을 것이다. 세이초가 소속된 제 150사단의 보병 제429연대는 일본의 패전 후 10월 11일 정읍을 출발하여 10월 16일에 부산에 도착, 같은 날 배로 일본 센자키(仙崎)항에 도착⁴⁵⁾하였다.

「반생의 기록」에 묘사된 해방 전후의 조선 풍경과 정읍, 그리고 일본인사회의 생활상은 「빨간 제비뽑기」 뿐 아니라 「백제의 풀」과 「도주로」에도 거의 비슷하게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세이초 자신의 경험이 가장 구체적으로 반영된 이러한 작품 속에는 그의 분신이라고 할 만한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경험을 가장 구체적으로 담았기 때문에 지역명을 바꾸고 3인칭 전지적 작가시점으로 서술하여 객관적으로 묘사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2. 전쟁과 병사들의 욕망

출정중인 남편의 부재와 그 아름다운 아내라는 소재는 「백제의 풀」과 「도주로」에서 다시 한 번 사용되었다. 단, 1955년에 발표된 「빨간 제비뽑기」가 순수문학적 성격이 강하다면, 3캐럿 다이아몬드의 소유주들을 둘러싼 치정

43) 「반생의 기록」, pp.146~147.

44) 「반생의 기록」, pp.152~153.

45)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12122490700, 「朝鮮(南鮮)方面陸上部隊(1)」

과 애육을 다룬 1963년작 『현란한 유리』의 연작소설인 두 작품은 보다 통속 소설의 성격이 강하다. 「백제의 풀」은 스즈이물산(鈴井物産) 광업소 기사 이하라 유이치(井原雄一)가 조선 현지에서 징집되어 용산에서 교육을 받은 후 근무지였던 ‘금읍(金邑)’에 주둔하게 된 후의 이야기를 다룬다. 집 근처인 농업학교 기숙사에서 거주하면서도 아내에게 소식조차 전하기 어려운 상황의 유이치는 스물세 살 아내 히사코(寿子)가 나이든 할멈과 둘이서 사는 집에 원기 왕성한 35세의 야나기하라(柳原) 참모가 하숙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하라가 아내 걱정으로 전전긍긍하던 어느 날 야나기하라 참모는 모악산 금산사에서 시체로 발견되고 이하라는 격전지 오키나와로 전속되었다. 범행의 전모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하라가 아내를 탐하는 야나기하라를 죽인 것으로 추정된다.

후속작 「도주로」에서는 야나기하라의 후임으로 부임한 시노하라 겐사쿠(篠原憲作) 대위가 아름다운 히사코에게 반하여 그 주변을 맴돌게 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일본의 패전을 미리 알아차린 시노하라는 사단 급역을 횡령하여 2명의 동료와 일본으로 밀항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이 소설에서 철저하게 대상화된 히사코는 자신을 탐하는 남자 3명과 목포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밀항선에 동행하여, 향해 도중 시노하라가 라이벌들을 차례로 제거하는 것을 무력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백제의 풀」이 남편의 관점에서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불안한 심경을 그렸다면, 「도주로」는 시노하라의 시선으로 히사코에 대한 거침 없는 욕망을 묘사하고 있다. 한편, 「빨간 제비뽑기」는 출정중인 남편과 그 아내를 둘러싼 장교들의 욕망이라는 소재에서는 동일하지만, 일본 패전 후 군부가 민간인 여성들 중에서 미군 ‘위안부’를 선발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다루었다. 세이초의 조선군 체험을 토대로 한 작품이므로 어디까지가 허구이

고, 어디서부터가 사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이초는 「반생의 기록」에서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일본군의 병기를 접수하기 위해 경성에서 미군 장교단이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단 휘하의 총기와 탄환이 속속 정음으로 집결했다.

그러자 장교들은 일본인회 회장을 불러서 미군 장교단을 접대하는 건에 대해 의논을 했다. 그들은 일본인 여성, 특히 유부녀 중에 적당한 사람을 추천하라는 뜻을 던지시 회장에게 전했다.

얼핏 들은 이야기는 그게 전부였지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대충 짐작이 갔다. 장교들의 머릿속에는 일찍이 자기네들이 중국에 갔을 때 그런 대접을 요구했던 기억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전범의 죄를 덜어보려는 속셈이었다. 나는 모파상의 『비계덩어리』가 떠올랐다⁴⁶⁾.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빨간 제비뽑기」는 패전 후 병기 접수를 위해 경성에서 오는 미군 장교단에 대해서 장교들과 일본인회 회장이 성 접대에 관해 나누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것을 토대로 구상한 작품이라는 점이다. 둘째, 세이초가 그들의 이야기를 얼핏 듣고도 미군 장교단에 대한 접대 내용과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즉, 당시 일본 장교들이 중국 전선에서 누렸던 위안부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일개 병사들도 추측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셋째, 장교들과 일본인회 회장의 대화를 통해 세이초가 모파상의 『비계덩어리』를 연상했다는 점이다. 프로이센·프랑스전쟁을 배경으로 한 여성에게 강요된 희생과 그 희생 뒤에 그 여성이 동료들에게 당했던 모멸이 「빨간 제비뽑기」에도 반영되어 있다.

세이초는 강연에서 당시 실제로 ‘밤의 접대에 일본인 여성을 선정’했고, 이에 대해 상관들이 ‘재류 일본인 전체의 안전을 위하여 견디기 힘들어도 견

46) 「반생의 기록」, p.152.

덜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증언⁴⁷⁾했다고 한다. 더불어 그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점령지에서 행해온 자신들의 경험에서 나온 발상이 아닐까' 하는 추론도 덧붙였다는 것이다. 즉, 세이초는 군과 일본인회가 어떤 방법으로 성 접대 여성을 준비했는지 구체적으로는 몰랐지만 그 내용과 의도는 대체로 짐작했던 것이다.

군 '위안부' 연구자인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에 따르면, 일본 해군이 1932년 1월 상하이사변(上海事變) 때 해군위안소를 설치하였고, 이 해군 위안소를 참고로 육군이 1932년 3월부터 위안소를 설치⁴⁸⁾한 것이 군 위안소의 시작이라고 한다. 그런데 일본이 군 위안소를 설치하게 된 것은 중국정부가 상하이에서 공창제도를 폐지하려 한 것이 계기로서 일본측은 요리점 작부(酌婦)제도를 만들어서 일본인 외에 조선인도 고용하여 공창제를 유지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1931년 9월 18일에 발발한 만주사변 때 이미 군인들을 상대로 하는 업소가 설치된 바 있었다. 당시 길림 총영사 이시이 이타로(石射猪太郎)는 9월 21일 길림을 점령한 일본군 제2사단 장병들의 '생리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수의 조선인 여성들이 수입되었다⁴⁹⁾'고 회상하였다. 그런데 일본 도호쿠(東北)지방 궁핍한 농가 출신인 병사들 대부분은 급여를 고향에 송금하고 있었기에 이런 업소에 들락거릴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즉, 만주사변 당시 장병들의 '생리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시설은 병사들의 봉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치스러운 요릿집이나 요정들이었고 이런 곳에서 많은 조선인 여성들을 고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만주사변이나 상하이사변 때 '장병들의 생리적 욕구 충족'이라는 목적에서 요릿집이나

47) 久保田裕子, 앞의 논문, p.63.

48) 吉見義明, 『從軍慰安婦』, 岩波書店, 1995, pp.15~16.

49) 石射猪太郎, 『外交官の一生』, 中央公論社, 1992, p.209.

요정에서 여성들을 고용하였으며, 이것이 군 위안소의 초기적 형태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⁵⁰⁾.

그런데 위의 경우가 ‘아군’을 위해 ‘타지(식민지) 여성’을 고용한 사례라면, 「빨간 제비뽑기」의 경우는 한때는 적이었던 미군 병사의 접대를 위해 일본인 여성을 희생시키려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 목적은 위안부를 제공하여 ‘전범의 죄를 덜어보려는 속셈’이었던 것이다. 과거의 적에게 ‘우리 편’을 제물로 바쳐서 일본군, 나아가, 일본 정부와 일본의 죄를 사면받으려 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패전 후 일본인들이 과거의 적에게 ‘우리 편’을 바친 경우는 미군에 대해 서만이 아니었다. 흔히 8월 15일을 일본의 패전 혹은 종전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중국 동북지역에서는 1945년 8월 9일 0시를 기하여 소련이 일본에 대해 선전 포고하면서 소련극동군 174만 명이 만주로 진격⁵¹⁾했다. 이로써 만주는 소련군에 점령되었으며, 이후 중국 국민당군과 공산군이 교대로 만주지역을 차지하였다. 당시 만주에는 개척단, 의용대, 보국농장 등의 형태로 총 1,127개의 일본 농민 집단이 있었지만 이 가운데 17%에 해당하는 청장년 인구가 징집되었기 때문에 개척단에는 노인과 여성, 미성년자들만 남아있었다⁵²⁾. 남방지역으로 이동한 관동군 75만 명을 대체하기 위하여 1945년 7월 10일 이른바 ‘씩쓸이 동원’에 의해 만주 각지의 중년 남성에게도 때 아닌 소집영장이 송달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주 개척’의 가치를 내걸고 이주한 일본 농민들은 실은 그 지역을 개척한 중국인이나 조선인들의 땅을 빼앗아 개척단을 일구었기 때문에 8

50) 김영숙, 「만주사변의 전개와 식민지 조선-조선군과 조선총독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중앙사론』 46, 2017.

51) 김영숙, 「일본의 패전과 만주지역 일본인의 귀환-개척단 농민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22, 2013, p.263.

52) 김영숙, 앞의 논문, p.266.

월 9일 이후에는 한편으로는 소련군의 진주, 다른 한편으로는 토지를 빼앗기고 쫓겨났던 현지주민의 공격이라는 이중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패전 후 현지주민들에게 포위되어 집단자결 위기에 놓인 개척단이 소련군과 교섭하여 ‘폭도’ 현지주민 진압과 식량 제공의 대가로서 소련군에게 여자를 바친 사례가 있다. 기후현(岐阜県)에서 만주로 건너간 구로카와(黒川)개척단은 전쟁터에 나간 개척단원의 부인을 제외⁵³⁾하고 10대 후반을 중심으로 한 미혼여성 15명에게 소련군을 상대로 ‘접대’를 강요⁵⁴⁾하였다. 또한 만주에서 귀국하는 피난길이나 난민수용소에서 많은 개척단이 소련군에게 여자를 제공하였다. 제비뽑기로 여성을 내놓은 개척단도 있고, 단장 명령으로 내놓은 개척단도 있었다⁵⁵⁾. 당사자의 의사를 배제한 개척단과 소련군의 거래는 일본인 여성을 전리품으로 인식하는 소련군과 여성을 공유 재산으로 보는 개척단의 공통인식⁵⁶⁾이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적’에게 바치는 일본인 여성들은 ‘우리 편’에 속하는 일본인 남성을 지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흔히 ‘개척단을 위한 숭고한 희생’으로 포장된 사례의 이면을 살펴보면 여성들의 자발적인 희생이 아닌 남성들에 의한 참혹한 강요라는 것이

53) 출정병사의 부인을 제외시킨 이유로는 출정병사의 ‘총후(銃後)’를 지키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 점, 소집되어 부재하는 동료 ‘남성’에 대한 배려, 가부장제에 의해 미혼여성은 가장에게 ‘접대’를 강요당하면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논리에서였다. 猪股祐介, 「語り出した性暴力被害者満州引揚者の犠牲者言説を読み解く」, 上野千鶴・蘭信三・平井和子編, 『戦争と性暴力の比較史へ向けて』, 岩波書店, 2018, p.177.

54) 猪股祐介, 「満州移民の引揚経験岐阜県黒川開拓団を事例に」, 『蘭信三, 『帝国崩壊とひとの再移動：引揚げ、送還、そして残留』, 勉誠出版, 2011, p.69 ; 猪股祐介, 「語り出した性暴力被害者-満州引揚者の犠牲者言説を読み解く」, 上野千鶴・蘭信三・平井和子編, 『戦争と性暴力の比較史へ向けて』, 岩波書店, 2018, pp.176~184 참조.

55) 鈴木裕子, 『慰安婦問題と戦争責任』, 未来社, 2001, p.58.

56) 猪股祐介, 「語り出した性暴力被害者-満州引揚者の犠牲者言説を読み解く」, p.178.

드러난다. 어느 개척단에서는 패전한 해 9월 하순, 나이 14세에서 21세의 여성들을 개척단 본부 뒤로 불러서 낮은 목소리로 여자정신대로서 소련군 속사에 가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처녀들 가운데서 정신대가 무슨 뜻인지 묻는 사람이 있었는데, 50대의 부단장은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정신(挺身)해야 한다(앞장서야 한다).”고 명령하였다. 그들은 ‘개척단의 위안부’가 될 것을 강요당했던 것⁵⁷⁾이다.

민간인 여성에 대한 군인의 강간은 군의 군기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대일 참전 후 소련 병사에 의한 중국 동북에서의 일본인 여성 강간에 대해서는 많은 증언이 있다. 때문에 일본측에서 강간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내의 예기, 창기⁵⁸⁾, 기타 피난해온 이러한 여성들을 모아 위안시설을 갖추었던⁵⁹⁾ 예도 있다. 아무리 매춘에 관계된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이라고 해도 피난길에 ‘적군’의 위안부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야말로 『비계덩어리』와 똑같은 상황이다.

일본인 남성이 같은 일본인 여성에게 이러한 일을 강요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이 단계에서는 한반도에서 여성들을 데려와 위안부로 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며, 상황이 바뀌면 일본인 여자라도 얼마든지 ‘위안부’로 삼았던 것⁶⁰⁾이라는 지적은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위안부’ 동원이 일본 패전 후 일본 외부에서만 자행된 것은 아니었다. 일본 정부는 미군 진주와 더불어 ‘외국주둔군 위안시설 등 정비요령’을 통해 점령군 전용 위안소를 만들었으며, 이것이 후에 ‘특별위안시설협회(Recreation and Amusement Association, 이하 RAA)’가 되었다. RAA란,

57) 鈴木裕子, 앞의 책, p.59.

58) 흔히 술집에서 일하거나 매춘에 관련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작부, 예기, 창기 등으로 부르지만 각 단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다. 본문에서는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였을 뿐이다.

59) 吉見義明, 앞의 책, pp.208~209.

60) 鈴木裕子, 앞의 책, p.60.

점령군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위안시설의 총칭으로, 1945년 8월 18일 일본 내무성 경찰국의 요청으로 같은 달 26일에 설립되었다. RAA의 목적은 ‘성(性)의 방파제’ 마련, ‘일본인의 보호’에 있었는데, 특수위안시설협회는 “우리는 결코 진주군에 아양을 떠는 것이 아니고, 절도를 꺾은 것이 아니며, 어쩔 수 없는 예의를 지불하여 조약의 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공헌하여 사회 안녕에 기여함으로써 크게 말하자면 국체호지(國體護持)에 정신(挺身)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⁶¹⁾.”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점령군 대상 위안시설을 만들면서 ‘사회 안녕’, ‘국체호지’ 같은 거창한 구호를 내건 것이다.

RAA를 만들면서 주로 미군을 상대하는 양공주를 지칭하였던 이른바 ‘팡팡’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어린아이들이 길가에서 ‘팡팡놀이’를 할 정도로⁶²⁾ 팡팡의 존재는 일상적이었다. ‘팡팡놀이’란 남자 아이가 GI 모자를 눌러쓰고 여자 아이의 팔짱을 끼는 흉내를 내는 것이었다. 세이초의 1958년 작 「제로의 초점」은 주인공이 자신의 양공주 과거를 숨기기 위하여 연쇄살인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후 일본의 사회상을 반영한 대표작이다.

3. 외부의 적이 아닌 내면의 모순을 바라보는 시선

신조는 「빨간 제비뽑기」에 대해 ‘해방 후의 혼란한 조선에서 일본인 귀환을 묘사하면서도 그곳에 조선인이라는 타자가 부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동시대 문학작품과 다른 점으로서는 귀환 이야기에 대한 저항을 스스로의 내부로 끌어들여 ‘일본인’이라는 상상적 주체의 분열을 그림으로써 ‘조국’으로의 귀환이라는 이야기 구조에 근본적 균열을 일으켰다⁶³⁾는 점을 들었다. 그는

61) 鈴木裕子, 앞의 책, p.43.

62) ジョン・ダワー(John Dower), 『増補版 敗北を抱きしめて(上)』, 岩波書店, 2004, pp.120~121.

63) 新城郁夫, 앞의 논문, pp.141~142.

그 원인을 가시적인 적과 조우하지 못하고 적과 투쟁할 기회를 빼앗긴 탓에 불가피하게 군대 내부나 식민자 일본인의 내부에 적대하는 대상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에 노출⁶⁴⁾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해방 전후의 조선이라는 무대가 가시적인 적을 만날 수 없는 곳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다른 격전지와 달리 조선에서 한가로운 나날을 지내다 보면 ‘대체 전쟁은 어디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질 때가 있었’지만, 8월 15일 이후 조선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세이초는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사령부에서는 자질구레한 일을 하는 군무원 자격으로 한국인들을 일부 고용하고 있었는데, 다음 날부터 그들은 확실히 태도가 대담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까지 방공연습을 하고 있던 한국인들이 다음 날 아침부터 일제히 일장기를 개조한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패전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 들은 채, 우리는 총과 대검 등의 무기를 모두 한국인 측에 양도해야 했다. 한국 청년들은 우리한테서 가져간 대검을 허리에 차고 총을 어깨에 멘 채로 대오를 정렬해서 거리를 행진했다. 반면에 사령부에서는 보초조차 아무런 무기가 없었다⁶⁵⁾.

세이초가 체험한 해방 후 조선의 풍경은 「빨간 제비뽑기」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조선인들이 일장기를 개조하여 하룻밤 만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일본 군에게서 무기를 받아가는 등의 긴장이 감도는 상황을 묘사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조선인 대 일본인의 대결로서 전개하지 않고, 일본군이 전범의 죄를 면하기 위하여 일본인 여성을 미군에 위안부로 바치려고 했던 내부 모순으로 그렸다. 그리고 미군이 위안부 요구 없이 물러간 후 구스다 참모와 스에모리 군의관이 서로 견제하면서도 위안부 선발을 위한 빨간 제비를 뽑았던

64) 新城郁夫, 앞의 논문, p.143.

65) 『반생의 기록』, pp.150~151.

쓰카니시 부인을 부산에 도착하기 전에 범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전개하였다.

해방 후 조선인들의 동향은 일본군에게는 매우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외부의 적과 조우하지 못한 까닭에 ‘불가피하게 군대 내부나 식민자 일본인의 내부에 적대하는 대상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가 권력의 부조리와 일개 공무원의 농간 때문에 34세에 소집영장을 받고 군대에 끌려간 세이초는, 간발의 차이로 뉴기니행 죽음의 수송선을 벗어난 덕분에 조선에서 살아 돌아갈 수 있었다. 따라서 그의 비판의 시선은 국적이 다른 조선인이 아니라 패전과 귀환 과정에서조차 안일하게 행동하는 일본군 장교들을 향하고 있다. 일본군의 일원으로 패전과 귀환을 경험했으면 서도 이를 소재로 한 모든 작품에서 세이초는 조선인을 가해자, 또는 적으로 설정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안전에만 급급한 장교들에게 냉철한 비판을 가했던 것이다.

그런데 「빨간 제비뽑기」가 아직 군대 위안부나 귀환 과정에서 개척단이 소련군에게 여성을 제공한 사례 등이 공론화되기 전인 1955년에 발표되었다는 점에도 주목해 보자.

개척단의 사례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 데는 1972년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 이후 분촌유족회(分村遺族會), 척우협회(拓友協會) 등 과거 개척단 관련 조직들이 중국방문단을 파견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중국방문단 파견을 계기로 만주의 기억이 재편되면서 참가 여성들끼리 ‘기억하지 말자, 잊어버리자’고 결심하여 가슴 속에 묻은 사연들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⁶⁶⁾ 귀국 후 ‘처녀들의 비(乙女の碑)’ 건립이 논의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구로카와 개척단의 경우 단 본부나 소련군 주둔지에 ‘접대소’를 만들어 미혼여성에게 소련군을 상대하게 하고, 단 본부에 의무실을 두어 위생병 지도 아래 자궁

66) 蘭信三, 『日本帝国をめぐる人口移動の国際社会学』, 不二出版, 2008, p.301.

세정 등을 하게 했지만 성병과 발진 티푸스로 7명이 목숨을 잃었다⁶⁷⁾고 한다. 소련군 접대의 비밀은 피해여성과 그 가족, 단 간부, ‘접대’에 관여했던 자(소련군에 안내한 자, 자궁 세정 및 목욕 담당자 등) 사이에서 봉인되었지만 그것은 단 간부의 책임을 불문에 부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처녀들의 비’ 건립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단 간부가 일부 여성단원을 ‘위안부’로서 바쳤던 과거를 고백하며 “젊은 처녀들의 숭고하고도 아픈 청춘의 희생이 있었다.”고 밝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세이초는 1955년 단계에서 책이나 기사를 통하여 이러한 사례를 접할 수 없었으며, 일본군이 중국에 강요한 성 접대나 개적단 일화 등을 자신과 주변의 체험을 통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장교들과 일본인회 회장의 대화를 들었던 기억을 토대로 「빨간 제비뽑기」를 발표했던 전후 10년의 일본인사회에서 이 소설의 내용은 그리 충격적이거나 놀랍지도 않은 ‘흔히 아는’ 이야기였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로서는 아무도 입 밖에 내어 말할 수 없었지만 누구나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기에 「빨간 제비뽑기」는 당시 일본 사회에 충격을 던지지 못하였으나, 개적단에 대한 구술조사가 상당히 축적되어 많은 관계 서적이 출판된 현대사회에서 이 작품이 시사하는 바가 더 크다는 사실은 역설적이다.

IV. 맺음말

「빨간 제비뽑기」는 마쓰모토 세이초가 1955년에 발표한 현대소설로서, 1944년부터 패전 때까지 조선군으로 복무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해방 전후의 조선 풍경과 패전 이후 일본인들의 귀환까지를 그린 작품이다. 이러한 체험

67) 猪股祐介, 「語り出した性暴力被害者—満州引揚者の犠牲者言説を読み解く」, p.180.

을 바탕으로 출정병사의 아름다운 아내를 둘러싼 구스다 고급 참모와 스에모리 군의관의 각축전을 심리묘사를 중심으로 잘 그려낸 역작이다.

이 작품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패전 후 일본인들의 귀환스토리 범주 안에서 소설의 묘사와 함의를 분석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 한국 독자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평가하고자 한다. 첫째, 일본인 병사로서 조선에서 패전을 맞이한 세이초가 조선인 대 일본인의 대결과 갈등에 중점을 둔 내용이 아니라 장교들이 전범 처벌 회피를 위하여 미군에게 일본인 위안부를 제공하려고 한 얘기를 썼다는 점이다. 즉, 민족적 대결이 아니라 전쟁의 속성과 그 안에서 여성들에게 강요된 희생을 적나라하게 다루었다는 점이다.

둘째, 전쟁 중 병사들의 성적 욕망과 남편의 부재 속에 출정 병사의 아내가 감당해야 하는 위험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잘 묘사했다는 점이다.

세이초의 작품 전반을 살펴볼 때 여성을 주체보다는 대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고, 남성 심리에 세밀하면서도 여성 심리 묘사는 간략한 경향이 있다. 따라서 세이초는 페미니즘에 입각한 작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전쟁에 짓눌린 개인의 삶, 젊은 여성들이 전쟁 속에서 감당해야 했던 두려움과 굴욕 등을 「빨간 제비뽑기」에서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도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남성들의 욕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서술에 객관성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여성 심리가 전면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전쟁 중 여성들이 처한 상황을 더욱 긴박감 있게 잘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日本空間

논문 투고일 : 2020년 11월 10일

논문 심사일 : 2020년 11월 30일

게재 확정일 : 2020년 12월 10일

www.kci.go.kr

참고문헌

- 김영숙, 「일본의 패전과 만주지역 일본인의 귀환-개척단 농민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22, 2013.
- 김영숙, 「만주사변의 전개와 식민지 조선-조선군과 조선총독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중앙사론』 46, 2017.
- 김용의, 「마쓰모토 세이초(松本清張)의 한국 관련 작품 양상 및 특징」, 『일본연구』 84, 2020.
- 마쓰모토 세이초, 김경남 옮김, 「빨간 제비」, 『어느 「고쿠라 일기」 전』, 모비딕, 2017(松本清張, 『ある「小倉日記」伝』新潮社, 1965).
- 마쓰모토 세이초, 김경남 역, 『아직 늦지 않았다-마쓰모토 세이초, 반생의 기록』, 모비딕, 2019(松本清張, 「半生の記」, 『松本清張全集』 34, 文藝春秋, 1974).
- 마쓰모토 세이초, 남궁가윤 역, 『검은 수첩』, 도서출판 북스피어, 2014.
- 마쓰모토 세이초, 이규원 옮김, 『현란한 유리』, 도서출판 북스피어, 2018(松本清張, 『松本清張全集』 2, 文藝春秋, 1971).
- 한기련, 「마쓰모토 세이초(松本清張) 연구-한국관련 작품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79, 2018.
-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12122490700, 「朝鮮(南鮮)方面陸上部隊(1)」
- 蘭信三, 『日本帝国をめぐる人口移動の国際社会学』, 不二出版, 2008.
- 蘭信三, 『帝国崩壊とひとの再移動：引揚げ、送還、そして残留』, 勉誠出版, 2011.
- 石射猪太郎, 『外交官の一生』, 中央公論社, 1992.
- 上野千鶴・蘭信三・平井和子編, 『戦争と性暴力の比較史へ向けて』, 岩波書

- 店, 2018.
- 北九州市立松本清張記念館編, 『松本清張の軍隊時代—朝鮮の風景』, 北九州市立松本清張記念館, 2004.
- 久保田裕子, 「引揚げの記憶を表象/隠蔽すること」, 『松本清張研究』17, 2016.
- ジョン・ダワー(John Dower), 『増補版 敗北を抱きしめて(上)』, 岩波書店, 2004.
- 新城郁夫, 「移する「勝者の欲望」—松本清張「赤いくじ」を読む」, 『現代思想』33-3, 2005.
- 鈴木裕子, 『慰安婦問題と戦争責任』, 未来社, 2001.
- 森史朗, 『松本清張への招集令状』, 文藝春秋, 2008.
- 曹雅潔, 「松本清張の初期小説における語り手の姿勢—『小説研究十六講』を補助線に」, 『九大日文』32, 2018.
- 李彦樺, 『松本清張と異文化接触』, 関西大学博士論文, 2014.
- 吉見義明, 『従軍慰安婦』, 岩波書店, 1995.

Abstract

Women who were forced to serve as war sacrifices-
based on the analysis of Akai Kuji 赤いくじ by
Seicho Matsumoto 松本清張

Young-suk, Gim

Akai Kuji is a modern novel published in 1955 by Seicho Matsumoto, which depicts the colonial Choseon before and after liberation and the return of the Japanese people based on military experience from 1944 until the defeat.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readers in the 21st century, I would like to evaluate the following points: First, Seicho, who was defeated in Korea as a Japanese soldier, did not focus on confrontation and conflict between Koreans and Japanese. In other words, it dealt with the nature of the war and the sacrifices forced on women, not the national confrontation. Second, it depicts the risk that a soldier's wife has to deal with during the war in a cool and objective manner amid the sexual desire of soldiers and the absence of her husband.

Key words

Seicho Matsumoto, Akai Kuji,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colonial Choseon

